



2012년 일본 ODA백서 주요 내용: 함께 성장하는 ODA를 중심으로

차례

1. 민간 자금의 유입과 개도국의 성장
2. ODA를 이용한 개도국 지원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3. 인프라 수출을 통한 성장

주요내용

-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에 대한 ODA 확대 공표
-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
 -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베트남을 최대의 원조대상국으로 하여 엔차관 등 약 10억 1,300만 달러 공여 계획
 - 중국이 자원외교를 벌이고 있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는 약 17억 3,300만 달러 중점 배분 예정
- 기존의 ODA 실시 방향보다 적극적 의미의 개발협력 활동을 천명
 -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이 일본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도록 유도해야함을 강조
- 개도국 인프라 정비 관련 지원이 일본 기업의 對개도국 투자 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
 -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ODA를 활용하도록 제안

1. 민간 자금의 유입과 개도국의 성장

개도국은 빈곤, 기아, 질병,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이를 ODA만으로 충당하기에는 곤란한 상황

- 다양한 자금을 활용하여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야 하며 그 중 민간자금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최근 개도국에 대한 민간자금 흐름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개도국에 대한 자금 유입의 약 70%를 차지
 - DAC 회원국의 개도국 앞 민간자금 유입은 2011년 3,223억 달러로 동년 DAC 회원국 ODA 총액 1,340억 달러의 2배 이상

이와 같이 개도국의 효과적인 경제 개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

- 민간의 해외 직접투자는 자금 뿐만 아니라 기술, 지식, 경험 등의 이전을 통하여 개도국 국내 산업 강화 및 고용 증대까지 유도
- 또한, 오늘날과 같은 경제세계화 시대에는 해외로부터 민간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면 외국시장에 대한 접근성 및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어 개도국의 경제 성장이 가속화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안정된 정치 상황, 기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신뢰성 있는 사법 체계,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정비 등이 필수적
- 과거 일본은 개도국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목표로 특히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나 무역·투자 환경 정비 지원에 적극 참여
- 아프리카 지역은 일부 국가의 정치 불안, 인프라 부족 등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천연자원과 시장 잠재력으로 인해 민간 부문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일본은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를 통해 민간부문 주도의 아프리카 경제 성장을 지원
 - 2012년 G8 정상회의에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식품안전보장과 영양 상태 개선을 위한 신규 지원프로그램으로 「식품안전보장 및 영양을 위한 새로운 연대」가 출범하여, 민간의 참여 및 기술 혁신을 통한 아프리카 농업 분야 발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발전을 도모
- 이와 같이 ODA를 활용하여 개도국 내 인프라 및 무역·투자환경을 정비하여 기업 활동 제약 요인, 투자비용, 리스크를 경감하고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는 ODA와 민간 자금이 협력하는 양상은 개도국, 공여국, 민간 3자 모두에게 긍정적
- ODA와 민간 자금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개도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으며, 일본 기업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져 새로운 비즈니스 참여 가능성 증가

2. ODA를 이용한 개도국 지원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대외적으로는 신흥국·개도국의 고속 경제성장, 대내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국내 수요 침체 상황 가운데 일본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흥국과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국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한 과제

- 외무성과 JICA는 2012년부터 주관 부처인 경제산업성 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중
 - 경제산업성·중소기업청·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와 함께 ODA를 활용하여 개도국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뛰어난 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했으나 해외 사업에 관한 지식정보가 부족한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공헌
- 이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원조를 실시함으로써 ODA를 통한 이국간 관계 강화와 경제 외교를 동시에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1) 중소기업과 제휴한 프로젝트형 무상자금협력 및 비프로젝트형 무상자금협력

프로젝트형 무상자금협력으로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활용하여 개도국 인프라 정비

- 예를 들어, JICA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일본 중소기업이 기술우위에 있는 소수력발전 플랜트를 활용한 지방 전력화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현재 이국간 협력을 위한 조사 단계에 착수

비프로젝트 무상자금협력으로는 2012년 개도국 앞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비프로젝트 자금협력」을 시행

- 일본 중소기업이 제조하고 있는 제품 가운데 수원국의 요청이 있고 개도국 경제사회 개발에 도움이 되는 품목의 구매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2) 개도국 지원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 관련 위탁 조사 사업

2012년부터 위탁 조사 사업을 시작했으며, 동 조사 사업은 ‘수요 조사’, ‘안전화 조사’, ‘개도국 정부에 의 보급 사업’ 등 3개 부문으로 구성

- ‘수요 조사’는 개도국 개발 과제 해결시 일본 중소기업의 제품이나 기술을 활용코자 하는 수요를 파악하고 이러한 수요를 비즈니스화 하는데 필요한 조사를 국제개발 컨설턴트에 위탁
- ‘안전화 조사’ 및 ‘개도국 정부에 의 보급 사업’은 일본 중소기업의 제안을 바탕으로 개도국 정부 관계 기관과 협의 후 중소기업 제품 활용 또는 기술 이전 등을 지원
- 이러한 ‘안전화 조사’, ‘개도국 정부에 의 보급 사업’ 관련 제도는 2012년 실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거쳐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
 - 2012년 7월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수요 조사’ 8건, ‘안전화 조사’ 32건, ‘개도국 정부에 의 보급 사업’ 10건을 채택
 - 지역별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이 다수이며, 분야별로는 환경·에너지·폐기물 처리, 직업 훈련·산업 육성, 수질 정화·수처리 분야 등이 다수
- 향후에도 ODA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공헌하는 우수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할 계획

3) 협력 사례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수질 정화 사업 안전화 조사」사례에서는 수질 정화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가 부족하고 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케냐 농촌지역에 태양광 발전식 소규모 분산형 정수 시스템을 도입·보급하여, 안전한 식수를 공급함으로써 케냐의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일본 중소기업은 수자원 부문 산업 발전을 기대

3. 인프라 수출을 통한 성장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BHN) 충족 뿐 아니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실현과 안정적인 고용의 확대가 중요

- G8, G20 등 국제적인 포럼에서도 원재료와 제품 수송망의 구축이나 공장의 조업에 필요한 전력 공급 등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는 인프라의 정비 및 이를 통한 무역·투자의 활성화가 중요함을 강조
- 개도국의 이러한 왕성한 인프라 수요는 일본 기업의 큰 비즈니스 기회로 일본의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인프라 관련 산업의 개도국 진출을 위해 노력 중
- 민간의 자금과 기술을 동원하여 개도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해외직접투자 촉진을 통한 신산업 창출, 기술 이전을 통한 산업 고도화, 고용 촉진 등 개도국 경제에 다양한 혜택
- 일본 경제의 관점에서도 개도국 인프라 정비는 일본 기업의 투자환경 정비로 연결되어 해외 신시장 진출 기회로 활용 가능
 -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투자처로 적합한 지역에 대하여 도로·교량·철도·항만·공항 등 수송망 구축, 고효율 화력 발전소 등 일본 기술을 활용한 안정적 전력공급, 정보 통신 기술 등을 지원
- 법제도 정비, 세관의 업무능력 향상 등도 투자환경 개선에 중요한 요소
- 국제무역에서는 지리적인 거리에 비례하여 물류 코스트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국가 간 거리가 멀수록 무역량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수송 인프라를 정비함으로써 수송 기간의 단축과 수송량의 증가를 도모할 수 있어 무역 활성화 가능
 - 물리적으로 떨어진 경제권간의 물류량이 증대되면 경제통합을 가속화시켜 무역 활성화, 역내 경제 격차 감축 등 긍정적 변화가 가능
- 일본은 세계 각지에서 경제 회랑(Economic Corridor) 등 광역 인프라 정비를 지원하며 역내 무역 활성화를 통한 개도국 경제성장 실현에 적극 참여 중
 - 2011년 11월 ASEAN 정상회의와 2012년 제4회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 개도국 성장 가속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ODA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 인프라를 지원할 것을 표명
- 개도국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한바, 일본 ODA는 이러한 새로운 정책 요구에 대응하여 기존 제도 개선 및 신제도 도입을 진행 중
 - JICA는 민간기업의 지식·경험·자금·기술 등을 활용하는 동시에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PPP) 인프라 사업의 타당성조사 사업을 민간에 공모하여 위탁 조사하는 제도를 2010년도부터 실시 중
 - 지금까지 총 26건이 선발되어('12.12월 현재), 다수의 기업이 인프라 ODA에 참여 중
- 개도국 발전에 공헌하는 민자사업에 직접적으로 출자·용자하는 JICA 해외투융자 제도도 2012년 10월 본격 재개
 - 해외투융자제도 재개 후 제1호 안건으로 2013년 1월 30일 「베트남 롱안성 환경배려형 공업단지 조성사업」차관 계약 체결
 - 동 사업의 주요 안건은 베트남 롱안성 공업단지의 하수 처리 및 전력공급 관련 기술이전과 환경친화적인 공업단지 건설
 - 동 사업은 민관협력(PPP)의 대표적인 사례로 향후 인프라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해외투융자제도뿐 아니라 엔차관 절차의 신속화, 중진국 및 중진국 이상 소득수준의 개도국에 대한 엔차관의 유연한 활용 등 엔차관의 전략적 활용도 중요해짐